

“소수자 권리 존중...안보 큰 영향 없어”

“확실적 징역 1년6개월은 사실상 군 면제 전과자 양산 말고 대체복무로 해결해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배경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항소심 재판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들었다. 먼저 국제환경의 변화를 예로 들며 양심의 자유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특수한 안보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명밖에 되지 않아 병력지원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형 집행에서도 사실상 병역 면제를 위한 유죄 판결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했다. 재판부는 “입영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특수한 안보상황, 공감대 형성 미흡, 특히 논란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제외하더라도 병역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피자를 양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병력지원 손실에 대해서도 병력의 숫자보다 역량과 내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명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매년 현역병 대상자 중 생계곤란을 이유로 1100명 이상 입영을 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해 준다”며 “600명을 현역병에서 제외한다고 실질적 병력지원 손실로 이어진다는 국가의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의무 면제후고자 확실히 1년6개월 선고”=재판부는 “초범인 경우라도 예외없이 징역 1년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했다”며 “이는 병역의무라도 면

주고자 하는 동정심에서 확실히 판결을 내린 것일뿐 형사처벌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형 확정 후에도 교도소로 보내져 기결수가 돼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무결수용소인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행정 및 운영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 대신 대체복무 또는 사회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데 실정법을 어겼다며 유죄판결을 하고서는 막상 유죄를 선고한 후에는 사실상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역설적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이 전과자 신분으로 이런 의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의무를 마지도록해 떳떳하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주최 멘토링 행사인 ‘2016 드림락(락)서’가 18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광주 중·고등학생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 멘토와 함께 ‘꿈’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드림락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초등교사 직업 좋지만 농·어촌은 좀...”

전남 290명 선발에 245명 지원...2년 연속 미달

‘선발의 대상’인 초등학교 교사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 시험에서 지원자가 선발 인원에 못 미치는 ‘미달’ 사태가 2년 연속 빚어졌다.

경기·세종 등 수도권과 도심 지역 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난데다, 예비 인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선발 인원을 늘려잡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농·어촌 근무 기피 현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우울한 ‘지표’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마감한 결과, 290명을 뽑는 초등 일반교사 임용 시험에 245명만 지원해 0.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미달’됐다고 18일 밝혔다. 초등 일반교사 임용 시험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못 미치는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다. 지난해에는 493명을 뽑는데 423명만 지원해 0.86대 1의 경쟁률로 미달됐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 일반교사 임용 시험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못 미치는

경우는 5년 간 없었다는 게 전남도교육청 측 설명이다. 장애 분야와 섬·오지 등 지역 제한 교사로 전년도와 같은 ‘미달’ 사태를 빚었다.

14명을 선발하는 시·군 II와 3명을 뽑는 도서 I 부문은 한 명도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1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초등 교사는 2명(0.11대 1)만 지원했다.

유치원 일반 교사(13.12대 1), 특수유치원 교사(6.43대 1), 특수초등 일반교사(16.38대 1)의 경쟁률과도 대조적이다.

교육청은 예비 기간제 교사 확충 등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181명)보다 선발 인원

을 60% 가량 늘려잡은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고 채용 인원이 많은 경기·세종 지역 등으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농촌 지역인 전남을 비롯, 충남·북, 경북, 강원교육청 등이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러나 “예비 수요를 감안, 선발 인원을 늘려 잡은 만큼 교원 수급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는 2017학년도 공립 유·초등·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마감한 결과, 20명만 지원해 2명 포함을 뽑는 초등 일반교사에 101명이 지원,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치원, 초등 특수교사까지 포함한 전체 경쟁률은 10.3대 1로 집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2 해질 20:39
 해짐 17:52 달짐 09:50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4/25	보성	맑음	12/23
목포	맑음	15/23	순천	맑음	14/25
여수	맑음	17/23	영광	맑음	12/23
나주	맑음	11/25	진도	맑음	14/23
완도	맑음	17/24	진주	맑음	13/24
구례	맑음	12/25	군산	맑음	13/23
강진	맑음	14/24	남원	맑음	12/24
해남	맑음	13/24	축산도	맑음	16/20
장성	맑음	11/23			

◇비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11	04:03
여수	21:42	16:41
	04:38	11:10
	17:08	23:19

◇주간 날씨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	☀	☁	☀	☀	☀	☀
14/26	15/22	16/21	14/20	11/20	11/20	11/20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석면 노출

광주 금호·쌍촌시영·송광, 위해성 함유 평균 70% 넘어

광주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어진 종합 사회복지관의 석면 함유 비율이 위험 수위에 이르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주경남(서구4)의원은 18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3곳의 석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은 모두 7곳이다. 이 중 광주시 소유는 쌍촌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이다. 이들 3곳은 1992~1994년 사이에 지어져 20년이 넘었다.

2014년 한국궤터시원원 석면 조사 결과 이들 사회복지관의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 면적과 석면 비율이 50%를 넘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사회복지관별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과 석면비율은 금호복지관의 경우 2649㎡ 중 1464㎡로 석면비율은 55.27%였다. 또, 쌍촌시영복지관은 1949㎡ 중 991㎡, 석면비율은 50.85%였다. 송광복지관은 1987㎡ 중 910㎡, 석면비율은 45.57%로 조사됐다.

특히 석면함유 자체 중 중금속급 이상의 위해성 함유비율은 금호복지관이 71.4%, 쌍촌시영복지관은 81.8%, 송광복지관은 72.2%였다. /최권일기자 cki@

119 이송 거부한 30대 결국 사망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남성이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의 병원 이송을 거부한 후 결국 사망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한 목욕탕 수면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된 A(35)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만인 17일 새벽 4시20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12분께 같은 목욕탕 탈의실에서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이날 새벽 5시14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의식을 되찾고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119구급대는 이날 새벽 5시40분께 철수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은 “A씨가 쓰러진 이후 하체 경직과 같은 증상이 발견돼 응급 치료와 병원 이송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g (25.5g 가벼워진)

가볍다. 편하다!!

ADD FG2

• 방수 탁월
• 접지력 우수 • 친환경 소재
• 100% 국내 자체 생산
• 철저한 사후관리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